더워진 날씨 길거리 음주족 '골치'

편의점·공원 등 무질서한 시민의식 눈살

늦은 밤시간 고성방가까지 주민들 '곤욕'

지난 15일 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노상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늦은 밤시간까지 야외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술자리를 하는 행위가 잇따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도심 속 공원에서 음주족들의 이런 행위들로 인근 주민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까지 호소하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일선 지구대 등에 따르면 야외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9월이다. 지구대 직원들이 신고접수 후 가장 많이 출동하는 장소는 10건 가운데 평균 5~6건이 주택가가 밀집된 편의점 주변지역이다.

편의점 주변에서의 음주는 술값이 저렴하고 안주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어 늦은 시간 음주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소다. 특히 여름철 원룸촌이 밀집된 주택가 주변 슈퍼나 편의점은 파라솔까지 설치돼 음주족들에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편의점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업장 안에서 라면이나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행위는 금지돼 있다. 때문에 음주족들은 술 구매 후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과 파라솔로 이동해 음주를 즐기고 있어 사실상 음주행위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도나 도로 위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처벌대상이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나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간 음주족들의 고성방가는 인근 주민들의 시름을 깊게 한다.

원룸촌이 밀집돼 거주지 주변에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 신 모씨(42·광산구 수완동)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엔 밤 늦은시간까지 편의점 주변서 취객들이 떠들어 댄다"며 "밤새 술에 취해 고성방가와 소란을 피워 잠을 설치 때가 많다"고 말했다.

도심 속 공원도 음주소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위를 피해 공원 등지를 찾아 맥주를 즐기는 '길맥족(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들이 고성방가 등 지나친 음주·가무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풍암호수공원이나 운천저수지, 체육시설이 구비된 광주천변 인근엔 밤늦은 시간까지 벤치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욕설 및 고성방가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운천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모씨(44)는 "야간에 공원에서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며 "가볍게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눈 것까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공공시설인 만큼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방가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경찰 지구대 한 관계자는 "늦은 밤 음주소란 신고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소란 근절을 위해선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성숙되고 올바른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광주·전남서 통일쌀 모내기

1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서창 통일쌀 경작지에서 열린 '대북제제해체! 통일 트랙더 품앗이 성사! 평화번영, 통일 농사기원 모내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모를 심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지역 농민들이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인 지난 15일 통일을 염원하며 북녘에 보낼 통일쌀을 모내기를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영암군농민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전 영암군 덕진면 논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남측위원회·농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논 2.64㏊에 통일쌀을 모내기하며 남북 농업교류와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들 단체는 "통일쌀 모내기는 통일농업의 씨앗이자 열매가 될 것이다"면서 "모내기한 벼가 통일쌀로 북녘에 전할 때면 북미간 종전선언이 체결되고 민족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법원,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경찰관 "해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해임처분 내용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조선대 이사회, 총장 해임취소 행정소송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교육부의 강동완 총장 해임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소청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차기 총장 선출방침을 결정했다. 총장의 공석상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조기철 기자

광주 상무·치평중 통폐합 반발에 '네 탓 공방'

시교육청-서구청, "상대방 제안" 책임 떠넘기기

광주시교육청과 서구청이 상무중과 치평중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한다는 공문을 상무중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해당부지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상무중과 치평중 통폐합은 지난 2017년 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통폐합을 재추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이렇다 할 대책은 물론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하며 반대 대책위 등을 구성하며 강력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휘국 시교육감은 최근 학부모들과 면담을 통해 "지난 5월까지 진로체험센터 설립 부지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나 서구청장이 '상무중을 폐교하고 그 자리에 SOC를 설립하면 거액의 국비지원도 가능하다' 며 제안을 해와 통폐합 추진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서구청은 즉각 반발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오히려 교육청이 상무중 폐교안을 먼저 제안해 서구청이 협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 교육감과 서 구청장이 통폐합 재추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학교 통폐합 문제를 놓고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감과 서구청장이 네 탓만 하는 진실공방에 분노가 치민다"며 "3자 대면을 통해 해명은 물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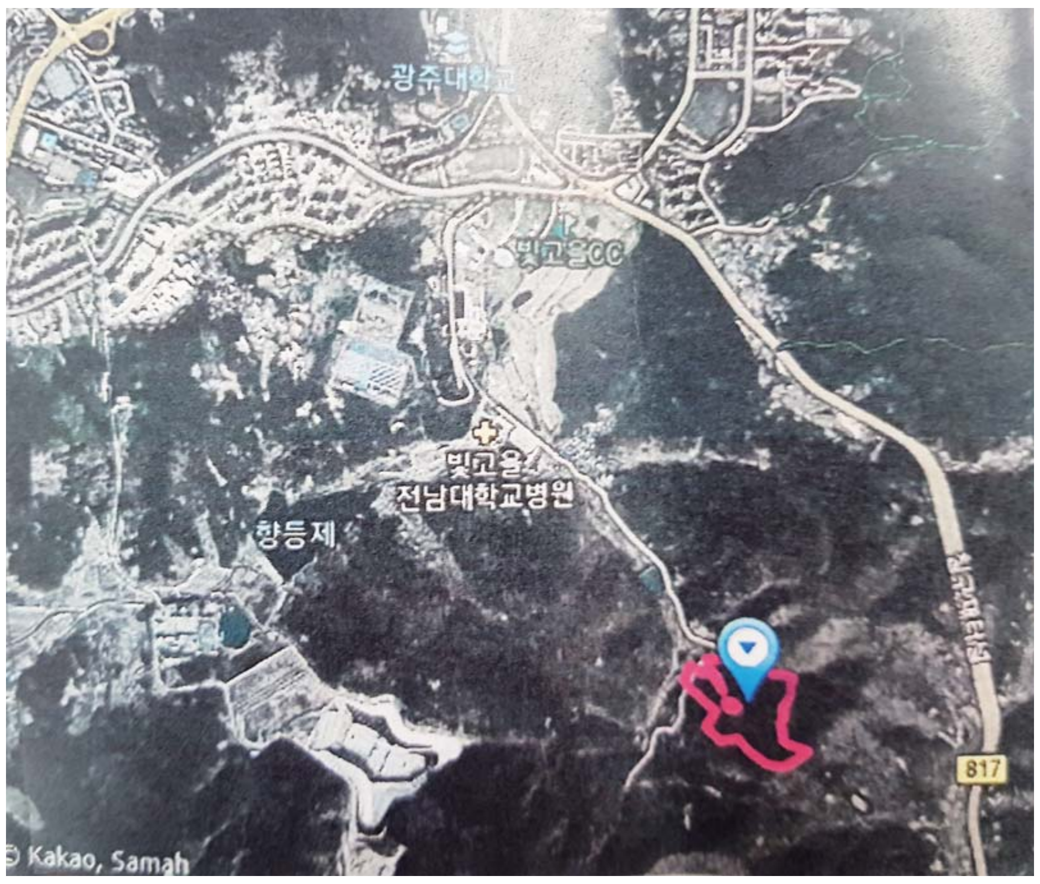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도리깨

○…건설현장에서 날아온 비산물 때문에 차량이 더러워졌다며 항의하는 민원인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서행.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51)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서구 금호동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비산물로 인해 차량이 더러워졌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정 모씨(51)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공사장 비산물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사과를 해야지 민원인에게 주먹을 휘둘러서야 되겠느냐"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고 다짜고짜 폭행해 경찰서에 오게 됐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